

2010년 베트남의 독일산 제조설비 수입현황

베트남은 2010년에 3천4백만 유로에 달하는 텍스타일 및 의류 제조 설비를 수입하였으며, 이는 전년 대비 114% 상승한 것이다.

이 중 방직 설비가 88.2%를 차지하며, 금액으로는 약 3천만 유로에 달한다. 그 외에 직기, 편성기 및 가공기가 포함된다.

독일 VDMA 섬유기계협회에 따르면, 2010년 8월 이후부터 텍스타일 및 의류 제조 설비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.

베트남의 섬유 기계는 대부분 중국, 대만 및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며, 일본과 독일에서는 소량 수입되고 있다.

독일의 Groz Beckert사, Dornier사, Karl Mayer사, Müller사 및 Rieter사와 같은 일부 선도적인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에 주재하고 있다.♣



<그림> 베트남 봉제 공장 전경